



보도시점 2025. 2. 23.(월) 11:00 배포 2025. 2. 23.(월) 08:30

인공지능첨단바이오 창업 초기 기업, 1개월 내에 특허심사 결과 받는다!

- 지식재산처 창업열풍 조성 위해 초고속심사 트랙 신설 -

【관련 국정과제】 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 # 바이오분야 스타트업 A社は 최근 생산 설비 확충을 앞두고 대규모 자금 확보 필요. 마침 A社가 보유한 기술을 눈여겨보던 투자자는 특허권 확보가 마무리되면 즉시 자금을 투입하기로 하였으나, 특허권 확보 시점이 불투명해지면서 투자 유치가 중단될 위기
- # 이차전지분야 B社は 특허권 확보가 지연되면서 해외 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고, 해외시장 진입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절박한 상황. 마침 작년 10월 도입된 수출촉진 초고속심사를 활용해 신속하게 특허권을 확보하여 적시에 해외시장 선점의 교두보 마련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2.23.(월)부터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창업 초기 기업 지원을 위한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을 신설한다. 1개월 내 특허 심사 결과 확보가 가능해 창업 초기 기업의 시장 진입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진출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가한 기업에게 수출촉진 초고속심사 신청자격을 부여하여 부처간 칸막이 없이 창업기업을 전폭 지원하며, 대학·공공연구의 보유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활용되도록 대학·공공연구 보유기술을 활용한 예비창업까지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초고속심사는 1개월, 우선심사는 2개월 내에 1차 심사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어, 평균 14.7개월 소요되는 일반심사에 비해 특허권 확보를 위한 심사 대기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 일반 - 우선 - 초고속심사 비교 >

구분	일반심사	우선심사	초고속심사
심사대기기간	14.7개월	2.1개월	1개월
중간서류 처리기간 (보정서 제출 시)	6개월	2개월	1개월
연간 제한건수	제한없음	제한없음	(^㉕) 1,000건 → (^㉖) 8,000건*

* ^㉕수출촉진, ^㉖해외진출 + 첨단기술 각각 2,000건(2025년 10월 15일 시행),

^㉗창업 초기 기업 + 인공지능, ^㉘창업 초기 기업 + 첨단바이오 각각 2,000건(2026년 2월 23일 시행)

<초고속심사 유형 신설: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기술 분야 창업 초기 기업>

가장 큰 변화는 창업 초기 기업 전용 초고속심사 트랙을 신설한 것이다. 신청 대상은 창업 초기 기업,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업의 출원으로서, 기술변화가 빠르고, 기술기반 성장 가능성이 큰 인공지능 및 첨단바이오분야에 적용한다. 두 기술분야의 출원에 대해 연간 각각 2,000건씩 초고속심사가 제공*되며, 이를 통해 인공지능 및 바이오 창업 초기 기업 출원의 심사대기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창업 초기 기업의 신속한 권리확보를 지원하고 창업열풍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 구체적인 신청대상, 신청기간 등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수출촉진 초고속심사 확대: 타 부처 사업 참여기업>

기존 제도는 구체적인 수출 실적을 요구하여 창업 초기 기업이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수출실적이 없는 창업 초기 기업도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진출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였다면 초고속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해외진출을 추진 중인 창업 초기 기업도 초고속심사를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코리아 창업 초기 기업센터

<예비창업자 대상 우선심사 지원>

예비 창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대학·공공연 보유기술은 지금까지 상업적인 실지로 인정되지 않아 우선심사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대학·공공연이 참여하는 예비창업 및 소속교수와 연구자 등에 의한 예비창업까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대학·공공연의 보유기술을 활용한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우리경제의 버팀목인 기술기반 창업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권리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지식재산처는 인공지능, 바이오 분야 창업 초기 기업을 위한 초고속심사 전용트랙 신설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심사관 증원을 통해 모든 기술분야의 창업 초기 기업이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창업열풍 조성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제도과	책임자	과 장	신진섭 (042-481-8321)
		담당자	사무관	이용혁 (042-481-8243)
		담당자	사무관	이에원 (042-481-5397)

□ (초고속심사) AI·첨단바이오 창업기업 신설, 수출촉진 대상 확대

- 초고속심사 신청대상을 수출기업에서 창업기업까지 확대*하고, 정부시책에 맞추어 지원이 시급한 AI·바이오 창업기업을 우선 실시**

*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 출원한 창업기업을 초고속심사 대상으로 추가

** AI 2,000건, 첨단바이오 2,000건 우선실시 추진(지식재산처장 공고대상)

- 지재처 수출촉진 관련 사업*의 출원 뿐만 아니라, 중기부 해외진출 창업기업 지원사업** 관련 출원까지 수출촉진 초고속심사 확대 제공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

**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코리아 스타트업센터 사업

[초고속심사 유형]

구분	초고속심사 대상	규모제한	시행
해외진출 (현행)	• 수출촉진 관련 출원	연간 2,000건	'25.10.15. ('26.2.23. 확대)
	• 첨단기술 + 조약우선권기초출원	연간 2,000건	'25.10.15.
창업 (추가)	• 첨단기술 AI* + 창업기업	연간 2,000건	'26.2.23.
	• 첨단기술 바이오* + 창업기업	연간 2,000건	

□ (우선심사 확대) 창업지원 관련 우선심사 대상 확대

- 대학·공공연의 보유기술을 활용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 준비 중인 대학·공공연 등의 출원도 우선심사 제공

* 대학·공공연의 창업 또는 소속 교수·연구자 등이 보유기술을 통해 창업할 경우, 창업준비중인 출원으로 우선심사 이용 가능

□ (우선심사 정비) 우선심사 절차지연 방지를 위한 제출서류 정비

- 불필요한 심사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판단에 필요한 번역문* 및 출원-실시발명 대비표**를 제출서류로 명문화

* 출원서류, 납부확인서 등에 대한 번역문을 통해 해외에서 출원 진행여부 확인

** 출원발명과 실시발명의 비교를 통해 실제로 자기실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판단